

11/1/20

설교 제목: 야곱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0 장 25-43 절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28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 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삯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 41 실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 43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그곳에 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 년 동안 외삼촌을 섬겨야 했습니다. 외삼촌을 섬기는 14 년 동안 야곱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아와 라헬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 등 네 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그들로부터 아들 열 하나와 딸 하나를 얻게 됩니다.

라헬이 열 한 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마침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을 다시 섬기겠다고 약속한 7 년도 다 끝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을 외삼촌 라반에게 밝힙니다.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 야곱이 얼마나 그리던 '내 고향' '내 본토'입니까?

형을 속인 죄로 형을 피해 며칠만 가 있으라던 어머니를 말을 따라 외삼촌 집에 온지 14 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라반은 만류합니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온 이후로 재산이 크게 불어난 라반은 그것이 야곱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합니다.

라반의 이 말을 듣고 있노라면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 라반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야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덩어리 야곱을 자신의 집에 더 잡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28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도 솔깃했습니다.

14 년 동안 외삼촌 집에 거하며 외삼촌을 섬겼지만 모은 재산이 없었던 야곱은 이참에 한 밀천 장만하고 싶었습니다.

라반이 이기적이고 탐욕이 강하며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재산을 모아 그것을 가지고 보란듯이 고향에 돌아가고픈 간절한 욕구가 있었기에 야곱은 라반과 거래를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그동안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부당한 행동을 언급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되물습니다.

31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 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같은 것이 나면 나의 샅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의 물음에 야곱이 품삯을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다소 생똥맞습니다.

지금 있는 아롱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아롱진 염소, 점있는 염소들은 다 골라내고 이제부터 낳는 아롱진 양, 점 있는 양, 검은 양, 아롱진 염소, 점있는 염소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선뜻 동의합니다.

보통 양은 거의가 다 흰색이고 염소는 거의가 다 검거나 흑갈색입니다.

아롱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아롱진 염소, 점있는 염소는 드뭅니다.

더구나 지금 있는 아롱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아롱진 염소, 점있는 염소들을 다 골라내 따로 떼어 놓고 순전한 색깔의 양과 염소만 있는 상태에서 아롱진 양, 점이 있는 양, 검은 양, 아롱진 염소, 점있는 염소 새끼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계산이 빠른 라반은 당장 일을 진행시킵니다.

34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신이 직접 수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놈과 점 있는 놈, 암염소 중 아롱진 놈과 점 있는 놈, 검은 양들을 가려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게 합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것들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룩무늬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 점있는 염소, 검은 양들이 순전한 색의 염소나 양과 섞이면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는 새끼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 야곱의 몫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색을 가진 양과 염소들 사이에서 얼룩 무늬가 있는 놈, 아롱진 놈, 점이 있는 놈, 검은 양 등이 태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도대체 왜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생똥맞은 제안을 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이 워낙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라 그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야곱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야곱이 품삯으로 양과 염소를 받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후에 라반이 야곱의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긴다면 야곱은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것과 라반의 것을 명확히 구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설마 라반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고요?

라반은 충분히 그런 억지를 부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미 수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해 왔습니다.

결혼할 때도 야곱을 속이고 신혼 방에 약속한 라헬 대신 레아를 집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라반이 20 년 동안 그의 품삯을 열 번이나 번역하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란을 빠져 나왔을 때 라반이 뒤쫓아 오자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31 장)

38 내가 이 이십 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 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이십 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 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다해도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것과 라반의 것을 구분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얼룩진 양과 염소, 점이 있는 양과 염소, 검은 양 새끼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야곱은 순전한 색깔의 양과 염소들 사이에서 얼룩진 양과 염소, 점이 있는 양과 염소, 검은 양 새끼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온 이후로 14 년 동안 양과 염소를 돌보았으니 거기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같은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복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보같고 어리석은 제안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롱진 양과 염소 새끼, 점 있는 양과 염소 새끼, 검은 양 새끼 등을 얻기 위해 희한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 실한 양이 새끼 뱌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 개천의 물구유에 세우고 양이나 염소가 물 먹으러 올 때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게 합니다.

특별히 실한 양이 새끼 뱀 때는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꺾질 벗긴 나무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습니다.

야곱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짓을 한 것입니까?

흰 무늬가 있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게 하면 얼룩얼룩한 새끼, 아롱진 새끼, 검은 새끼가 나오니까?

세상 속설을 믿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일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과가 야곱의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과 염소들이 그곳에서 수태를 했고 실한 아롱진 것들, 실한 점 있는 것들, 실한 검은 것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실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우입니다.

야곱이 이런 생뚱맞은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야곱은 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 어떻게 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우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베엘에서의 약속을 지키시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역사하셔서 실한 얼룩진 양과 염소, 실한 점, 있는 양과 염소, 실한 검은 양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베엘에서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여 지켜 주시고 복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게 된 것은 야곱이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엘의 약속을 지켜 야곱과 함께 해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자인 야곱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언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친히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탄할 따름입니다.

한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당신의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홀로 지켜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